

## 나의 책 나의 학문

金完鏞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1.

내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것은 공교롭게도 1950년 6월의 일이었다. 법적으로는 6월 1일 입학이었지만, 19일에 가서야 입학식을 가졌고, 강의는 다시 한 주일 뒤인 26일에 시작되었다. 6·25 사변이 발발한 다음 날이었다. 한문과 영어의 수업이 있었지만 강사가 자기 소개를 하고 약간의 잡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다음날 학교에 가 보니 정문 안쪽에 '無期休講'이라는 고시 간판이 서 있고 학교 구내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입학식이 있던 날 신입생 일동은 국문과 합동연구실에 모여 상견례를 가졌다. 근엄한 표정의 李明九 조수 선생(조교라는 이름은 훨씬 뒤에 와서 쓰였다) 앞에서 둘러가며 자기 소개를 하였지만, 기억에 남지 않아 뒷날 다시 인사하며 동기동창임을 확인해야 했다. 기록에 의하면 26명이 입학하였으나 11년 걸려 졸업한 총 인원은 11명에 불과했다.

당시의 국문과에는 다섯 분의 선생님이 계셨다. 문학에는 陶南 趙潤濟, 가람 李秉岐, 어학에 一石 李熙昇, 心岳 李崇寧, 一簣 方鍾鉉이 그분들이셨다. 입학시험 때 가람과 心岳 두분이 면접을 담당하셨기에 어떤 분들이신지를 알고 있었거니와, 一石 선생을 뵈은 것은 입학식장에서가 처음이었다. 孫晉泰 학장이 단상에서

一石과 心岳을 소개하였다. 一石은 문학부장이시고 心岳은 교무과장이셨다.

사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학 쪽의 두 분은 학교를 떠나셔야만 했다. 가람선생님께는 후일 대학원 과정에서 직접 경해에 접하고 덕으로 찾아 뵈오며 지도를 받은 일까지 있지만, 도남 선생님께는 끝내 그러한 기회마저 가지지 못했던 것을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부산에서 선배의 소개로 인사드린 일이 있고 그 뒤로 뵈오면 웃음으로 맞으셨지만 그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기회는 끝내 없었다.

전란의 고비가 약간 누그러지면서 생긴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곳에 등록하여 '51년 가을과 '52년 초의 두 학기를 대전에서 지냈다. 모든 것이 낯선 땅에서 心岳을 뵈시고 음운론 강의에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方鍾鉉 선생을 처음 뵈은 것도 대전에서였지만, 출장차 오신 것이어서 인사드리는 것에 그쳤다. 다음 해 부산에 내려가 문리대의 임시 교사에서 방언학 강의를 들었는데 교실에서의 그분과의 인연은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었다. 방중현 선생은 그해 11월에 병환으로 작고하셨다.

부산에서는 一石 李熙昇 선생을 따라 또다른 학문의 세계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이 기쁜 추억으로 남는다. 학부와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지도교수로 모셨지만, 그분은 그러한 형식 관계를 넘어서 인생과 학문의 영원한 스승이셨다. 신기한 것을 좇아 무한한 일탈을 서슴치 않는 내 성향을 이만큼이나 다잡아 주신 것도 그분의 감화의 덕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학생들에게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었던가를 반성할 때마다 멀리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한다.

서울 수복과 함께 '53년 가을에는 동숭동 캠퍼스에 돌아왔고, 다음해 9월 한 학기 늦게 대학을 졸업, '55년 4월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였다. 전란으로 빼앗겨 버린 5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였다. 굶어도 연구실에서 굶겠노라는 가당찮은 각오로 중학교 교사직도 버리고 돌아왔지만, 그 생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딱하게 생각하신 一石 선생이 특별히 장학금을 마련해 주고 하신 것이 이때의 일이었다.

내 최초의 대학 직장은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이다. 대우전임직인 특대강사로 2년, 전임강사로 1년 반, 도합 3년 반을 근무하였는데, 전시연합대학 때에 수강한 일이 있는 池憲英 선생의 천거에 의해서였다.

1년 반을 단국대학에서 지내고 '61년 3월에 서강대학에 부임하였다. 서강대학에서의 10년은 정확히 내 30대 10년에 해당하거니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었던 10년이였다. 개교 2년째의 작은 대학이었고 국문과도 없었지만(국문과의 개설은 1964년) 교과서처럼 열심히 일했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혼란이 가지지 않은 시기에 '정상적' 교육의 시범(示範)을 체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였다.

이 시기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회상되는 일은 金烈圭 교수와의 협력으로 『大學國語教程』Ⅰ·Ⅱ를 간행한 것이겠는데, 대학에서의 교양국어 교육이 어떠한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끝에 펴낸 일종의 실험적 교재였다. 서강대학교에서 지금도 책이름과 함께 그 체제를 유지해 내려오고 있는 것에 감명받고 있거니와, 많은 대학의 국어 교재들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내 저작목록에는 이 교재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좀 지나치지 않았는가 생각하기도 한다).

서강대학 재직 중 2년 간을 미국에서 보냈다. 하버드 대학에서의 생활은 지나친 육식 때문에 오히려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못했던 흥미 있기는 하였으나 동심으로 돌아가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던 2년 간으로 추억된다.

'71년에서 시작하여 '96년 8월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25년 남짓의 기간은 서울대학교에서 봉직하였다. 재직 중 인문대학 학장이니 대학원장이니 하는 행정직을 맡는 객기를 부린 것을 부끄러워하거니와, 학교 밖으로의 파견 근무는 무슨 용기론지 강하게 사양했던 것을 기억한다. 학교가 관악으로 옮긴 '75년 8월에서 1년 간은 일본에 가 있었다. 동경외국어대학 부설의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의 외국인 연구원으로 초청 받아서의 일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의 착실한 학문 분위기에 접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기억한다.

이상이 내 학문의 외사(外史)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진단학회, 국어국문학회, 국어학회, 한국언어학회 등에 관여하여 대표 또는 회장을 맡았었음을 부기해야 할 자리일지 모르겠다. 봉사한 것보다는 누를 끼친 면이 많았을 것을 두려워한다.

## 2.

인생 70에 접어들면서 학문의 총체를 저술면에서 총괄해 보면 몇 권의 저

서와 100여 편의 논문을 썼노라 하겠는데, 그 전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말한다는 것은 나로서도 힘들어 보인다. 이것은 내 학문이 출발부터 잘 설계된 도면 위에 정연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고 안팎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침반이 많이 흔들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으나, 굳이 말한다면 내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음운론이었다고 해야겠다. 음운론은 내가 출발한 학문의 고향이었고 동시에 돌아갈 귀착점이었다.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음운론에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일을 반복하였거니와, 외경상 연구의 대상이 음운 현상이 아닌 경우에도 음운론의 틀과 음운론의 에스프리가 숨쉬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1973년에 제출된 학위논문인 「中世國語聲調의 研究」는 요구된 격식에 맞추어 4·6배판으로 제본되었으나(1973. 4. 15.), 오자 오식을 정정하여 간행할 때에는 국판의 형식을 취하였다(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韓國文化研究叢書』 11. 같은 1973년 간행). 4년이 지난 1977년 '재판'의 형식을 빌어 塔出版社에서 다시 펴낼 때에는 國語學會의 『國語學叢書』 4의 이름이 덧붙었다. 약간의 교정과 수정이 더해졌으나, 제3장에서의 '牽引子'라는 술어를 '抹消子'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미미하고 말단적인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저술과 관련하여 지금에 와서도 오히려 더욱 후회막급한 것은 河野六郎 교수의 1953년 논문을 참조하지 못했던 일이다(「中期朝鮮語用言語幹의 聲調에 就하여」 [日文], 三省堂刊 『金田一博士古稀記念 言語民俗論叢』, 昭和 28年 5月). 그분 생전에 구두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 일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기 정식으로 문면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 이 일에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으로 학문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은 잘 알고 있다. 그 논문을 읽었더라면 고생을 많이 덜 수 있었고 어쩌면 더 나은 글을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73년의 논문의 기본 골격은 그보다 10년 앞서 발표한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對하여」에 배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1963, 『西江大學論文集』 I). 특히 성조의 결정이 두 단계에 걸쳐 이룩된다는 사고는 '63년의 글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 점이 성조에 대한 내 생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실은 이와 같은 사고를 하게 된 것은 '50년대에 한참 문헌 자료들을 검색할 때 자료로서의 방정 분포의 불가사의한 '조화'에 매료되면서부터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去聲不連三'이니 하는 득의의 표현과 개념을 자랑하였던 것이나, '73년의 기술에서는 그러한 것이 많이 퇴조한 것이 아쉬웠다.

시류에 따라 형태음소론 내지 생성음운론의 윤색을 하면서 본래의 내 얼굴과 내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안스러웠다. 대신 얻어낸 것이 철저한 자동적 설명 기제의 확보라고 자위하였었으나 지금에 와 생각하면 가변적 단위와 추상적 개념을 배출하여 스스로 도취했던 흠이 없지 않으나, 당시의 음운론에서의 추상적 편향에 대한 개인적 기호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러는 자제력을 발휘하여 걸음을 멈춘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는 대목도 있다. 한때는 표면에서의 성조 실현을 L과 H만으로 나타내고, 따라서 상성(R)을 별개의 단위로 인정하지 않는 체계로까지 밀고 가려 하였던 적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음절을 버리고 모라(mora: 음절의 길이를 재는 단위; 보통 단모음의 길이가 이에 상당함)에 의지하여 단순화할 수 있는 이점을 노렸지만, 율동의 규칙 적용에 있어서의 상성의 자율성에 대한 반성으로 L, H, R을 같이 인정하며 음절의 중요성을 유지시킨 것은 잘된 처사였다고 생각하고 있다(1971: 「알파聲調와 子音附聲調에 대한 一考察」,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학위논문 이후로는 성조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자제하여 왔다. 후배들의 활약과 새로운 이론들의 전개를 즐겁게 관조하는 여유를 가지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두어 과제의 논의 방향에 대하여는 일종의 불안과 불만을 느끼고 있기에 여기에 적어 사람들의 참고를 구한다.

첫째는 참 성조어와 액센트어의 구별을 말하며 중세국어도 액센트 체계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다. 과연 자료들을 구석구석 실사하고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일까 염려가 된다. 가령 ‘아바님’, ‘어마님’은 [LHR], [HLR]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 다분히 액센트어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완전한 전환을 보지는 않은 언어의 예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일까.

더 나아가 전통적인 2분법은 완벽한 것인가까지도 물을 수 있다. 중국어를 참 성조어라 한다 하지만 거기에도 음절 연결에 따라 tone-sandhi가 생기고 경성(輕聲)과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는가. 그것이 교착어에서처럼 치렁치렁 늘어진 어형을 가지지 않기에 성조어라는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둘째는 중세국어 성조 표기의 기원에 관한 문제인데, 방점으로 표시된 성조는 이성계로 대표되는 집권 세력의 언어, 즉 관복 방언의 특징이지 경기 지방의

언어는 지금과 같이 성조를 띄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고에 접하는 일이었다. 재미있어 보이는 가설이지만,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도 『계림유사』 표기의 성조에 대하여 작은 돌파구를 여는 시도를 보였던 일이 있지만, 『계림유사』와 『조선관악어』에 대하여 면밀한 고구를 보인 권인한 교수의 최근의 연구들에서 한글 문헌에서의 성조와의 현저한 대응 관계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고려시대까지 성조체계를 소급시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허리를 자르며 관복 세력 대두설을 개입시킬 틈이 벌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

### 3.

별로 대중성 있는 글을 쓰지 못하였지만, 1980년에 낸 『鄉歌解讀法研究』(서울대학교 出版部)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책인 것 같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양주동의 『朝鮮古歌研究』(1947) 이후 30년에 걸친 막대한 국어학 연구 성과에 힘 입은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회상되는 일이 적지 않은 책이다.

이 저서의 바닥에는 그지없이 열정적이었던 양주동 선생의 강의와 나 개인에 대한 그분의 간절한 기대가 깔려 있다. 나도 열심히 따라 읽었다. 위편삼절(韋篇三絶)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게 낭마가 되도록 뒤적인 책은 『고가연구』 한 권 뿐이다.

나에게는 또 한 분의 스승이 있었다. 지현영 선생이 그분인데, 향가와 고려가요에 대해서 그분에게서 들은 시간을 합하면 500시간을 넘어 어찌면 1,000시간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분의 작은 저서 『鄉歌麗謠新釋』(1947)은 배후 논리의 제시가 없는 기서(奇書)로 통하거니와, 신선한 발상과 안티테제가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다른 세계가 그 뒤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막상 해독 작업에 몰입하게 된 것은 70년대 후반 일본에서 돌아와서부터의 일이었기에 일본에서 보았던 옛 사본들의 모습이 머리 속에 있었다. 삼국유사나 균여전의 문면을 넘어서 그전에 있었을 사본들을 상상하며 원전 비판에 주력한 것이 내 해독의 특징이라 한다면 일본에서 본 고사본들의 영상이 그 촉매로 작

용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원전의 비판과 오자의 정정에 관한 관심의 역사는 훨씬 뿌리가 깊어서 학생 때에 읽은 郭沫若의 한 논문에 대한 감탄에 비롯되는 것이거나, 하버드 시대에 돌길 비문을 읽으면서 프리츱 교수가 보여 주던 풍부한 상상력과 고증 방식이 상기되기도 하고, 몽고어 문서를 읽을 때의 클리브스 교수의 엄격성이 아울러 떠오르기도 하였다.

한편 해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 이리저리 섭렵하였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표의문자와 표음문자(훈독자와 음독자)를 아울러 쓸 때 이른바 訓主音從의 형식이 주도적이 된다는 것을 고대 이집트나 중동의 여러 나라, 또는 거란이나 여진에 이르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지정문자라는 가설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외계 탐험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선배들의 설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인들로부터의 충고를 받은 일이 있다. 비판은 새로운 논리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폄하의 의도는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좀 어색하더라도 ‘말음첨기’와 같은 술어를 보존하여 양선생의 공로를 기린다는지, 지선생이 ‘惡知’를 ‘엇디’라 읽은 것을 극구 찬양하여 그 공을 밝히는 일에 유념하였다. 또 모든 ‘理’자는 ‘리’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내 논리이면서 서재극 교수가 ‘倭理’를 ‘여리’로 읽은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旧理’ 등의 다른 ‘理’를 ‘리’로 읽지 않은 것을 애석해 한다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일이다. 실상 1970년의 한 논문에서 ‘倭理’가 ‘여리’됨을 말한 일이 있기에 서선생이 그것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 좀 섭섭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해독서에 오류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은 그 책의 서문에서도 이미 예기하고 있어 그 수정 보완을 말하였으면서도 단편적인 글을 얼마간 쓴 것밖에 없어 유감스럽다. 굳이 변명한다면 정년 퇴임 후에 쓴 고려가요 주석 관계의 논문 몇 편도 비슷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4.

편집자가 정해 준 분량을 너무 초과하였기에 조목별로 몇 가지만 추가하기로

한다.

'76년에 낸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는 제목부터가 좀 특이했지만, 매우 재미있는 작업이었다(『韓國文化研究叢書』 31, 韓國研究院). 언어사변형 즉 *carré linguistique*은 언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확보하고 싶어하는 이상적 여건인데,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들을 통하여 전형적인 네 기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두 중국어 교재가 종종 연간에 같은 인물에 의해 언해되었던 것이 약 2세기 뒤인 현종·숙종 연간에 다시 언해되어 간행을 보았는데, 숙종조의 『박통사 언해』는 종종조본을 언어 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영위된 것을 그 서문에서 알 수 있는데, 『老乞大』의 경우에는 앞의 언해를 뒤의 번역자가 참조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중종조의 『朴通事 언해본』까지 기적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전후좌우의 비교와 대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한 여건에 힘입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절호의 틀을 확보하고 인식했다는 데에 다른 의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한 권의 책으로 따로 묶지는 못했지만,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도 한 항목을 잡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世宗代의 語文政策에 對한 研究」(1973 : 『省谷論叢』 3)라는 제목 아래, 훈민정음은 미시적인 관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에서의 문자사라는 큰 흐름에 입각하여 거시적인 조명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기술을 고지식하게 따르는 평면적 해석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면서 나름으로는 새로운 개안을 얻은 심경으로 두어 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는데, 여기에 와서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적어도 두 개의 단계가 있고 표방한 원리의 대전환을 그 사이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스스로 복합과정설이라 할 만하다고 하였거니와, 나이가 들어 사고에 제법 성숙함이 깃들었다고 자궁하기도 하였으며, 음운론적 과정의 모델을 거기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좀 긴 안목으로 학계의 반응을 주시하는 심정에 있다.

문학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내 공부의 한 특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문학적으로 승화된 언어 현상을 언어학도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순진한 명제와 함께, 같은 학과 간판 아래 문학과 어학을 별거적 공존의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우직한 생각이 좀 이색적인 작업까지 하게 하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몇편의 논문을 묶어 『文學과 言語』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거니와, 정년으로 퇴직함에 즈음하여 기념논문집 제목으로 『문학과 언어의 만남』이란 멋있는 표현을 붙여 주었는지 모르겠다. 시류에 쫓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글 한 편을 거기에 보탤다. 짧은 글이지만, 운율론에 대한 여망과 불만을 담아 후인에 기대하는 뜻을 담았다.